

# 국힘, 비례 위성정당 호남 배려 강화 4~5명 후보 물망

### ‘국민의미래’ 당선 안정권 22명 예측 ...인요한 등 앞 순번 배차 시도당위원장 주기환·김화진·조배숙 등 출마 위해 입당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비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호남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최대 4~5명 가량의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이들에 대한 비례 순서도 당선이 가능한 상위에 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후보자의 당선 안정권은 22명까지라고 본다”며 “호남 출신은 5명 이상 최대한 앞 순번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이 당의 불모지 호남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등 의연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호남 공략 의지를 비례대표 순번 배치에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서진정책의 일환으로 호남 등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를 명문화한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사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자를 비례대표 ‘당선권 이내·25% 규모’로 우선 추천하게 돼 있는데 21대 총선 결과를 적용하면 광주와 전북, 전남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취약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당헌·당규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선 특히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선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 전북도당위원장,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국민의미래에 입당한 상태다.

또 전남 목포 태생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당내에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 전 위원장은 일제에 저항했던 가문 출신의 호남 토박이에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이미지, 혁신위 활동을 통해 얻은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갖췄다. 당 관계자는 인 전 위원장에 대해 “충분한 고려 대상이다.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라면서 “그가 등판하면 당내 호남 인사들 등용문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미래는 이날까지 접수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를 평가해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21~22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일단 18일 정도에는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후보등록 전까지 또 한 번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별 의제까지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이 끝나는 대로 소속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보내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못골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민주당, “총선용 공약 남발 선거 개입” 윤대통령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 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빼지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탈당 설훈·홍영표, 새미래와 함께 ‘민주연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설훈 의원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7일 ‘민주연대’ 결성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 설 의원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박영순 의원 등 4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찬사를 바라는 모든 분과 힘을 합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방탄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 방탄으로 상쇄됐다.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면서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당으로 등록된 새로운미래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민주연대나 새로운민주당을 당명으로 하지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당명을 바꾸는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이름 그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이정현, 전남 유권자 마음 사로잡을까

3선 국회의원·새누리 대표 지내  
과거 광주 서구율서 39% 득표  
전남지사 선거에서 19% 기록  
순천·광양·곡성·구례 읍에 출마



이정현(사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4·10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낸 당시 순천에 ‘예산 폭탄’을 투여하는 등 지역 발전에 힘쓴 바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7일 ‘섬진강의 기적’을 약속하며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순천 지역구에서 재선

하며 ‘보수 불모지’ 전남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정 받았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그는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방시대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여전히 건재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지낸 당시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새벽까지 진행되자 예정위 소속 동료 의원이 화장실에 갈 때까지 회의실 앞에서 기다려 예산 확보를 호소하는 등 지역을 위해 힘썼다.

그는 19대 총선 당시 광주 서구율에 출마해 39.7%의 지지를 받는 등 광주에서의 지지세 역시 탄탄하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해 18.81%라는 득표율을 기록했

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전남지사 선거에서 보수 정당 최고 득표율이다.

이 전 대표는 “이색 선거운동”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그는 유세를 하면 해당 마을에서 수시간씩 머물고,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 회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소통을 무기로 표심을 잡았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가 매년 자전거를 타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유명하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같은 이 전 대표의 지지세는 광주·전남의 국민의힘 득표율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보수 후보로 금배지를 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낳는다.

이 전 대표는 “단순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을 위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한 번만 손을 잡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